

가정생활의 관점에서 본 임금노동의 의미*

A Study On The Meaning Of Wage Labor In The Light Of Home Life

호남대학교 생활과학과
조 교 수 윤 속 현

Dept. of Living Science, Honam University
Assist. Prof. : Sook-Hyeon Yoon

〈목 차〉

- | | |
|----------------------------|---------|
| I. 서 언 | IV. 결 어 |
| II. 임금노동 형성의 역사적 고찰 | 참고문헌 |
| III. 가정생활의 관점에서 본 임금노동의 의미 | |

〈Abstract〉

Everyone lives in a home. We pursue happiness and the meaning of life through home life or family life. Home life, therefore,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e whole life. But home life can be sustained only through housework and wage labor.

All human activities can be divided into two kinds of activities. The one has intrinsic value, the other has extrinsic value. Housework belongs to the activity with intrinsic value, but wage labor belongs to the activity with extrinsic value. In view of home life, housework has primary meaning, and wage labor has subsidiary meaning. In other words, wage labor is only means of home life. We must not forget that important fact.

But we cannot help thinking that nowadays people consider wage labor itself as an aim of life. It is said that we are achieving self-actualization through wage labor, but it is not true. To tell the truth, most of us are experiencing self-alienation in job.

We must recover the legitimate relation between housework and wage labor. Wage labor is means of home life, therefore it is on the extension line of housework. If we achieve happiness through home life, we must recognize that wage labor is only means of home life, not an end in itself.

* 본 연구는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I. 서 언

사람은 누구나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가정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고, 가정생활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은 개인들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하여 이루지기보다는 제도 속에서 삶의 전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즉,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해가는 과정은 곧 삶의 의미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 된다.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의미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의미로 파악될 수 있지만, 인간의 삶이란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축적되어 온 의미 속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정생활은 인간 활동의 핵심이 된다.

가정생활이 인간의 중요한 '활동'이라는 사실은 곧 가정에서의 '노동', 즉 '가사노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를 부각시킨다. 가정생활에서 가사노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논의를 요하는 문제이다(윤숙현, 1997).

가사노동은 가정생활에서 별도의 시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그것은 가정생활을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다르게 부르는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정생활을 가사노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사노동 그 자체가 곧 가정생활인 것이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사노동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은 곧 가정생활을 이 가사노동이라는 특수한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가사노동은 가정생활의 핵심을 차지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가정생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정생활의 영위와 관련된 또 하나의 노동이 곧 '임금노동'이다. 한 가정의 구성원들은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노동을 영위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는 가족 구성원들이 직접 소비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화폐를

벌어들이는 일이다. 이와 같이 노동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가사노동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가족원들을 연결시키는 고리이고, 임금노동은 가족을 사회의 다른 가족, 조직, 그리고 제도와 연결시키는 고리가 된다. 따라서 가정의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은 가족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형성된 가족생활의 구조와 질은 직업생활의 질이나 직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웨슬리 버어 외, 최연실 역 : 392).

최근에 우리나라는 IMF로 상징되는 초유의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면서 대량실업의 사태를 경험하게 되었다. 직장생활의 중단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실직은 일차적으로 가계의 수입원 중지를 의미하므로 중대한 경제적 문제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직 문제가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로 지각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경제적 곤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이나 다른 구성원들의 역할 정체성의 혼돈, 당사자의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서 가정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실업사태가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는 이러한 사태를 두고 볼 때 우리는 가정생활과 임금노동사이의 관계 규정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가정생활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임금노동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본 연구는 가정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임금노동의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임금노동은 가정생활의 노동적 측면, 즉 가사노동과의 관련이라는 측면에서 파악될 때 비로소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가사노동이 임금노동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 후,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임금노동의 의미를 가사노동, 더 나아가 가정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임금노동 형성의 역사적 고찰

노동에 대한 문제는 사회사상가, 경제학자, 그리고 여성학자들에 의하여 꾸준히 탐구되어 왔다. 사회사상가들은 인간활동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동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 왔고, 경제학자들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근거로서 노동가치론을 발전시켜 왔으며, 여성학자들은 역사적으로 가사노동의 주된 담당자가 되어왔던 여성들의 권익이라는 차원에서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가치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관심으로부터 가사노동 가치론을 발전시켜 왔다. 이들의 연구에 기초하여 임금노동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1. 원시 및 고대 사회

원시사회에서는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모두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곧 가사노동¹⁾이었으며, 비록 가정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로지 가정생활과의 관련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이 사회의 '원시공동체적 성격'은 개인이라는 의식이 나타나기 이전의 통합적이고 집단적 사고의 특성을 보여준다.

노예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고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확연히 구분되면서 사회적 분업 현상이 일어나고, 육체노동은 피지배계급인 노예들에 의해 행해지면서 전체 사회 성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의무가 이들에게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일과 여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사회적으로 분리되었으며, 이 시기로부터 육체노동을 기피하고 정신노동을 존중하는 사회통념이 일반적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희랍의 자유시민은 생산적 육체노동이 면제된 상태에서, 그 남은 시간에 철학을

놓고 예술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사회에서 특권층의 생활문화 중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바탕으로 생활예법이 발달되었다는 사실이다. 생활예법은 노동으로부터 면제된 유한계급의 삶의 상징적 표시이면서, 노동하는 피지배계급의 생활양식과는 사회적으로 구분해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신분제도라는 제도적 지지기반을 구비함으로써 더욱 공고히 된다(김문경, 1995 : 53-54).

이와 같이 고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생산양식이 바뀔으로써 노동이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댓가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즉, 임금노동)과 직접적인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즉, 가사노동)의 분리가 나타났지만, 임금노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원시사회에서의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임금노동의 초기 형태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의 획득이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가정생활의 의미에 비추어 보지 않는 한, 임금노동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었다.

고대 사회에서의 노동관은 Aristoteles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중세의 스킨라주의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없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기원전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행동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계학(oikonomia)과 영리추구를 위한 영리학(chrematistike)으로 나누고 이들 중 가계학을 우위에 두었다(문숙재 외, 1996 : 175).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를 획득하는 활동을 가정경영의 일부로서의 활동과 상업으로서의 활동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가정경영의 일부로서 부를 획득하는 활동은 필요하고 명예로운 활동인 반면에, 상행위로서 부를 획득하는 활동은 비난받을 만하다고 주장하였다(Aristoteles : 1256a-1258b).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의 노동과 자유인의

1)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노동의 의미를 찾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소비를 목적으로 하여 가정 내부에서 가족구성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노동'으로 보았으며, '임금노동'은 '다른 사람이 생산한 생산물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댓가를 목적으로 하여 가정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으로 보았다.

노동을 구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어떠한 노동, 기술, 지식일지라도 덕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노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특정 기술이나 모든 종류의 임금노동은 사고할 수 없게 하고 사고의 수준을 낮춘다고 보아 노예의 노동으로 간주하였으며, 덕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노동을 진정한 자유민의 일로 보았다(Aristoteles : 1337b). 가사노동은 성격상 임금노동이 아니며, 이 점에서 가사노동은 성격상 '덕'을 실천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은 '자유민'의 속성과 결코 대립되지 않는다.

이렇듯 원시 및 고대 사회에서의 노동은 가정생활 즉, 가족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가사노동이 주축이 되었으며, 이 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 가정과 사회가 일체로 파악되었다.

2. 중세 사회

중세 유럽은 토지, 즉 장원에 기초를 둔 봉건사회로서, 장원체제의 내부에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분업의 조건이 마련되었으며, 도시의 발전은 상공업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자급자족적 성격을 띠고 있던 각종 산업이 산업노동으로 전환되면서 임금노동은 이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노동관은 중세사회로 연결되어 발전되었다. 중세사회 초기에는 가족과 가계가 민족보다 더 우세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점차 교회의 힘이 커지면서 개별가족에서 씨족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기독교적인 가족관이 확립되어 갔다. 이러한 가계사상은 Augustine으로부터 시작하여 Aquinas에 이르러 확고해졌다(Egner, 1976 : 59).

13세기의 스콜라주의 철학자 아퀴나스는 자신의 생산물을 시장에서 팔고 그 수익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독립 소생산자의 생산활동에 관심을 가졌다. 아퀴나스는 생활의 필요충족을 위한 자연스러운 '교환'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발전시켰다. 자연스럽지 못한 교환, 즉 '영업'은 명예롭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지불한 것에 비하여 상품을 더 비싸게 팔더라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을 경우를 두

가지 들었다. 그 중의 하나는 영업을 통하여 얻은 이득을 가게를 영위하기 위해서나 또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필요하거나 또는 명예로운 목적을 위한 경우이고, 다른 한 가지는 상품을 개량했다든가, 때와 장소가 변함에 따라 상품이 달라졌다든가, 또는 그 상품을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수송하는 데 위험이 수반되었을 경우이다. 시장이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서 공정가격의 개념이 약화되고 초기 스콜라주의(Scholasticism)의 이론은 점차 쇠퇴해 갔으나, 생산자 비용을 근거로 하여 '가치'를 생각하는 개념은 이후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되었다(미크, 김제민 역, 1985 : 66-69). 이와 같이, 스콜라주의 철학에 와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oikonomia'의 개념이 확대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스콜라주의 철학은 노동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스콜라주의는 '스콜라'(schola)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 인식은 현대적 의미의 '노동활동'도 아니지만 '여가'라고도 볼 수 없다. 스콜라는 어떤 대상을 탐구자가 보고 싶은 방향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 편에서 드러내는 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인식이다. 중세의 스콜라는 종교적 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김승호, 1996 : 74-75). '스콜라'는 노동을 할 때의 '마음의 자세'라고 볼 수 있다. 스콜라는 노동의 결과보다는 노동의 과정에 관심을 두는 자세라고 하겠다.

이렇듯 중세사회에서는 도시의 발전이나 상공업의 발전과 함께 점차 임금노동이 생활에서 중요성을 증대시키게 되었지만, 스콜라주의 철학의 사조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당시의 노동관은 노동의 과정이나 자세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둬으로써, 노동의 결과물이나 댓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근대 사회 이후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전개되었던 문화운동인 르네상스(Renaissance)는 중세의 신 중심 사상으로부터 인간 중심 사상으로의 변화로서, 전통주의와 권위주

의에서 해방되려는 움직임이었다(임채원, 정세현, 1986 : 137). 이 시기의 사람들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교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의식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르네상스 정신은 유럽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16세기의 종교개혁으로 연결되었다. 중세의 노동관은 종교개혁 이후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다. 즉, 육체노동이 고통이고 일종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부정적 노동관으로부터 노동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무라고 보는 긍정적 노동관으로 변화된다. 루터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땀흘려 일해야 하며 태만은 자연의 순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노동은 '생활의 기초이자 열쇠'라고 하는 근대적 노동관을 제시한다(김문경, 1995 : 56-57). 이와 같은 노동관은 종교적 행위와 정신 노동, 육체 노동 사이의 구분을 없앴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Calvin은 청교도적 정신에 기본을 두고 신의 의지에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유일한 삶이라고 하여 현세의 직업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지향했던 내적 고행의 추구는 재산의 공정한 사용을 중시하였으며, 소비 특히 사치성 소비는 제한하였으나 이윤추구의 노력은 신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자본의 생성과 축적이 촉진되었다(문숙재 외, 1996 : 176).

이러한 신고윤리의 경제관에 의해서 시민의 부가 축적되어 자본주의사회가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근대 자본주의 체제는 신분의 한계를 벗어나서 토지(생산수단)로부터 자유로워진 농노들에게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제도에 필요한 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필요를 가져왔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임금노동자의 창출이라는 구조적 조건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에 적합한 생활질서의 창출이라는 과제가 요구된다.

임금노동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자본주의 초기 단계인 중상주의 시대에는, 노동을 강제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었고, 서부 유럽 국가의 노동정책은 노동시간을 강제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최단 노동시간법', 임금인하로 경제적 강제의 기반을 조성

하기 위한 '최고 임금법', 그리고 노동자의 투쟁역량을 분쇄시키기 위한 '단결 금지법'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노동정책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 차원의 이데올로기적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루터와 켈빈에 의하여 제기되었던 '근대적 노동관'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형성하게 하였다(김문경, 1995 : 58-59).

계몽주의 철학에 와서 노동은 중요한 논점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Locke는 노동이 가치창조의 본질적 요인이라고 보았으며, Smith는 두 가지의 가치 개념, 즉 특정재화가 인간에게 만족감을 주는 능력을 표시하는 사용가치와 다른 재화를 구매할 능력을 표시하는 교환가치를 사용하여 노동의 가치를 설명하였다(박홍립, 1988 : 29-30). 또한, 스미드는 자녀가 경제에 있어서 지속적인 부의 원천이라고 보았으며, 성인의 노동은 가족부양을 위한 일차적 책임이 된다고 가정하고, 가족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여성의 가사노동은 가족을 부양하는 성인의 노동력이라는 범위 내에서 설명되었다(조상국, 1991 : 63).

Malthus는 「인구론」에서 인류의 진보를 저해하는 요인이 인간의 집착심이며 이로 인하여 출산율이 증가되는 것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보았으며, 이와 같은 인구의 비판적인 미래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구억제정책과 함께 사람들이 결혼을 연기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도덕적 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김복수, 1991 : 174-177), Ricardo는 맬더스의 비판적 인구예측과 스미드의 가족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에 대한 믿음 모두를 포용하였다. 리카도는, 맬더스와 마찬가지로, 실질임금이 증가하려면 높은 자본축적이 요구되며 이는 가족의 크기에 대한 '신중한 자제력'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고 하였고, 스미드와 마찬가지로, 한 남자의 임금은 그가 온전히 일할 때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하기에 충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ill은 리카도, 맬더스와 견해를 같이 하여 빈곤한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조기결혼과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고, 독신자보다 결혼한 자들을 더 고용하게 하며 실질임금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의존

성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여성노동자가 일하게 되면 임금수준이 낮아진다는 점을 들어 여성은 가사노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또한 독신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을 부양할 정도의 임금만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여성의 노동과 남성의 노동을 불평등하게 취급하였다(조상국, 1991 : 64-65).

이와 같은 임금과 가정생활의 관련성에 대한 사고는 스미드를 비롯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노동 또는 노동력의 가치로서 임금을 결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것이 노동자 가계의 부양에 필요한 생존비라고 보는 관점으로 발전된다. 임금생존비설에서는 임금이 장기적으로 노동자와 그의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최저수준으로 수렴한다고 본다(박덕제, 이원덕, 1995 : 111-112).

리카도는 노동의 가격을 자연가격과 시장가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자연가격은 “노동자를 평균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되는 일 없이 생존시키고, 그래서 종족을 영속시키는 데 필요한 가격”이며, 시장가격은 노동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다. 만일 시장가격이 자연가격보다 높아지면 인구가 증가하여 노동공급이 증가되고, 따라서 시장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반대로 시장가격이 자연가격보다 낮으면 인구가 감소하여 시장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노동임금은 결국 노동자의 생존비인 자연가격에 일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임금생존비설은 균형임금수준에 대한 설명으로는 타당한 학술일지 모르나 단기간에 일어나는 임금변동이나 숙련공과 비숙련공 간의 임금격차 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박홍립, 1988 : 277).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는 가사노동에서 임금노동이 점차적으로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이것은 인간의 존재 양상의 변화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임금노동은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근대 산업 사회의 출현과 함께 임금노동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산업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자본의 논리는 노동의 ‘화폐가치’에 절대적인 힘을 부여

하게 하였으며, 이제 임금노동은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임금노동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점점 더 가정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그 극에 달하게 된다. 이제 임금노동은 단지 가정생활로부터 독립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III. 가정생활의 관점에서 본 임금노동의 의미

인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이후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많은 ‘활동’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인간은 ‘활동’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이 활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의 하나는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인 활동으로서 그것은 인간의 존재의미를 드러내고 드높이는 그런 종류의 활동이고, 다른 한 가지 활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활동을 위한 수단적 역할을 하는 활동으로서 그 자체의 활동은 부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종류의 활동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자는 ‘본질적 활동’, 후자는 ‘부차적 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사실적인 분리가 아니라 개념상의 구분이다.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구체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은 이 두 가지 활동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본질적 활동이 인간의 정신적 생명의 유지와 관련된 활동이라면, 부차적 활동은 인간의 육체적 생명의 유지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하겠다. 학문, 예술, 종교, 도덕 등과 같은 찬란한 문화는 바로 인간의 본질적 활동의 구체적인 산물이다. 이 두 가지 활동 사이에 조화와 균형이 유지될 때 비로소 인간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다. 즉, 본질적 활동이 삶의 중심을 이끌어 나가고, 그것을 위하여 부차적인 활동들이 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그와는 달리, 본질적 활동과 부차적 활동 사이에 역할 전도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은 왜곡된다.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의 관계는 바로 이 두 가지

종류의 활동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사노동은 인간의 본질적 활동이다. 인류역사상 언제부터인가 인간은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으며, 가정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원시사회나 고대사회, 중세사회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활동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때의 인간활동은 주로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때에도 임금노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임금노동은 소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임금노동은 부차적인 노동의 형태였다(Pahl, 1988 : 15).

임금노동이 자체의 논리를 펼쳐면서 가정생활과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근대사회 이후부터이다. 근대적 합리주의는 생산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인간의 더 많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지만, 이와 동시에 새로운 욕구를 창출하여 왔으며 공간과 시간의 부족을 경험하게 하였다. 현대인들은 밀집된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개인이 조절할 수 없는 강제적 시간에 쫓기고 있다. 욕구를 제한하는 데 기초를 두었던 사회적 가치는 점차 더 많은 소비를 지향하는 가치로 바뀌어 왔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평가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빈곤감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었다(르페브르, 박정자 역, 1995 : 83-95). 사람들은 점차 많은 것을 생산하게 되었지만, 생산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물과 인간 사이의 조화로부터는 점차 멀어져 왔다(보드리야르, 이상률 역, 1991 : 82-85).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임금노동은 인간의 자아를 실현시키려는 커녕 오히려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소외시켜 왔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직업의 의미를 논할 때 주저함이 없이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 직업 속에서 자아상실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왜냐하면 노동은 이미 노동자의 본성의 일부분이 아니며, 더 나아가 노동자가 그의 노동 속에서 스스로를 긍정하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하게 되고, 행복하게 느끼기 보다는 불행을 느끼며, 육체적, 정신적 동력을 자유로이 발전시키기보다는 그의 육체가 괴롭힘을 당하

고 그의 정신도 황폐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는 휴식을 가질 때 편안함을 느끼고, 노동 속에서는 불편함을 느낀다(Fromm, 1961, p.60). 이와 같이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노동 속에서 결코 인간은 자아의 실현을 경험할 수 없다. 현대의 노동 가치는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둔 자아의 실현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라는 경제적 가치에 의하여 평가된다. 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라는 잣대는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소외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제 인간은 오로지 임금 때문에 노동을 하게 되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임금노동을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말은 몇몇 특별한 임금노동을 제외하고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임금노동을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주장이 의심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임금노동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인가? 임금노동은 가정생활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수단적 의미를 가지던 임금노동이 이제는 삶의 목적이 됨으로써 삶의 본말전도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임금노동에 종사는 것이 삶의 근본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이다. 임금노동 그 자체를 두고 논의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수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정생활과의 관련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임금노동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생계를 위한 재화와 용역의 획득을 위한 수단은 그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최상의 것이며, 그리하여 반드시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이제 사람들은 가정생활을 희생해 가면서 임금노동에 집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임금노동을 통하여 획득하는 임금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오직 더 많은 임금을 획득하기 위하여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삶의 의미와 행복의 문제는 더 많은 임금을 벌어들임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

활과 임금노동의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 둘 사이의 조화를 이룰 줄 아는 통찰력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오로지 이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만이 임금을 인간의 행복한 삶에 유용하게 사용할 줄 알며, 그런 사람만이 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삶의 의미를 더 높이는 데에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정작 더 많은 임금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임금이 삶의 근본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실직)’이 곧바로 ‘가정붕괴’로 연결되는 오늘날의 상황은 가정생활과 임금노동의 관계를 잘못 파악한 사고방식의 최종적인 산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실업이 하나의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임금노동이 가정생활과의 관련을 떠나서 하나의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 때부터이다. “과거에도 ‘실업’이라는 사회 현상은 존재했지만,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변화되어 그것을 하나의 분명한 사회적 문제의 범주로 인식하게 된 것은 19세기말부터이다”(Pahl, 1988, p.19). 이때의 사회적 문제라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본 실업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정생활의 수단으로서의 임금노동에 실패하는 것이 곧 목적의 실패로 이어지는 수단과 목적의 전도현상으로서의 사회문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실업은 매우 큰 문제이며, 따라서 실업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가져서는 안된다든가, 또는 그것을 가볍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다. 다만 이때 임금노동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정생활과 임금노동의 관련을 올바르게 파악한다면, 실직이 곧 가정생활의 붕괴로 연결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임금노동이라는 것은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수단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하나의 수단이 실패로 끝났다면 얼마든지 다른 수단을 강구하려는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실직을 통하여 그 직업에서는 실패를 경

험했을지라도 또 다른 직업을 찾아 살 길을 모색했던 사례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혹여 실직으로 인하여 가족이 뿔뿔이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족원으로서의 삶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만약 사태가 이러하다면,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서 감내하는 정도의 생활을 참고 이겨낼 마음만 있다면,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지 않고도 실직이라는 동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은가? 왜 이렇게 되지 않은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임금노동이 차지하는 위치를 잘못 파악한 결과이다. 가정생활이 임금노동에 종속된 것으로 파악하는 인식의 틀 속에서 본다면, 실직을 당한 상황에서 가정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실업이 곧 가정생활의 붕괴로 이어지는 오늘날의 사태는 가정생활의 수단으로서의 임금노동을 점점 더 가정생활의 목적으로 파악해 온 인식의 변화가 낳은 최종적인 산물이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임금노동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임금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정생활과 임금노동의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실업과 같은 임금노동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임금노동을 더욱 중요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보다는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임금노동이 차지하는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것에 적절한 자리를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가정생활과 임금노동의 관련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안목은 아동기 이전부터, 가능한 한 아주 어릴 때부터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성인들이 그 두 노동의 관련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정생활과 임금노동의 관련을 인식하는 방식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며, 이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정과’ 교육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한 올바른 안목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

의 상황은 가정 혹은 학교에서 이 기능을 거의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실업의 사태를 맞이하여 어떤 것이 진정 우리 삶의 중심인가를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을 때, 더 나아가서 가정생활이 우리의 전체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정생활과 임금노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에서 보면 IMF라는 경제위기의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 준 것으로 파악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정생활과 임금노동의 관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해 주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비록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주어진 고통이기는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단지 'IMF는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극복하자'는 처방책을 찾는 일 이외에 아무런 삶의 교훈도 얻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문명된 삶의 형식을 영위하고 있는 민족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IV. 결 어

근대사회 이후에 인류는 끊임없이 물질문명의 풍요로움을 추구해 왔다. 그 결과 우리는 불과 1-2세기 사이에 엄청난 물질적 풍요로움을 창출해 내었다. 그리하여 근대사회 이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편리함과 행복을 창조해 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인간의 절대적인 행복을 증가시켰는가 하는 데에는 회의적이다. 이 점에 대해서 장 보들리야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대의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풍부함이 상실되었으며, 그 잃어버린 풍부함이 한없는 생산성의 증대에 의해서도, 새로운 생산력의 해방에 의해서도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설적인 것이 아니다. 풍부함 및 부의 구조적인 정의(定義)는 사회조직 속에 있기 때문에 사회조직 및 사회관계의 혁명만이 이 정의를 처음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보들리야르, 이상률 역, 1996 : 82-85).

이제 우리사회는 여러 삶의 분야에서 '조화'를 강조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 발전과 보존의 조화 등과 같은 구호가 호소력을 가질 만큼 한쪽 방향으로 편향된 발전은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가정생활과 임금노동 사이에도 조화를 강조할 시점이 되었으며, 이는 오직 가정생활이 중심이 되어 조화가 모색될 때 비로소 올바른 관계가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생활과 노동의 관계에 관하여 깊이 성찰하여 그 본질적 의미를 재인식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상기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을 사회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개인이나 가정, 사회의 차원에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문겸(1995). *여가의 사회학*. 서울 : 한울아카데미.
- 2) 김복수(1991). *경제학철사*. 서울 : 대왕사.
- 3) 김승호(1996). *스콜라주의 교육목적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로날드 L. 미크(저). *노동가치론의 역사*. 김제민(역)(1985). 서울 : 풀빛.
- 5) 문숙재 외 4인(1996). *새로보는 가정경영*. 서울 : 학지사.
- 6) 미로슬라브 볼프. 이정배(역)(1993). *노동의 미래 미래의 노동*. 한국신학연구소.
- 7) 박덕제, 이원덕(1995). *노동경제학*. 서울 : 비봉출판사.
- 8) 박동운, 이중희(편저)(1985). *최저임금제-그 이론과 실제*. 서울 : 우아당.
- 9) 박홍립(1988). *경제학 원론*. 서울 : 박영사.
- 10) 아코스 파울리니(저). 헬무트 쉬나이더(공저). *산업혁명 : 영국에 있어서 공장제의 성립. 노동의 역사*. 한정숙(역)(1994). 서울 : 한길사, 253-317.

- 11) 알프레드 존 레탈(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철학적 인식론 비판. 황태연, 윤길순(역)(1986). 서울 : 학민사.
- 12)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역)(1995). 현대세계의 일상성. 서울 : 주류일념.
- 13) 웨슬리 버어(저). 새로 보는 가족관계학. 최연실 외(역)(1995). 서울 : 하우.
- 14) 유명기(1991). 가사노동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여성문제연구. 19, 141-58.
- 15) 윤숙현(1997).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와 제도적 의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이종철(1991). 노동과 소외. 한국철학사상연구회(편). 삶. 사회 그리고 과학. 서울 : 동녘, 76-93.
- 17) 임채원, 정세현(1986). 세계문화사.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18) 장 보들리야르. 이상률(역)(1996). 소비의 사회. 서울 : 문예출판사.
- 19) 조상국(1991). 여성과 가사노동-경제학적 접근. 여성문제연구. 19, 61-100.
- 20) 조형(저). 여성의 일. 최정호, 김형국(공역)(1989). 일의 미래. 미래의 일 - 정보 사회와 일. 서울 : 남남 7, 171-196.
- 21) 헬무트 슈나이더 외(공저). 고대의 노예경제: 로마제국의 경우. 노동의 역사. 한정숙(역)(1994). 서울 : 한길사, 125-198.
- 22) Anderson, M.(1995). *Approaches to the History of the Western Family 1500-191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3) Aristotle. Foster, E.S.(trans)(1966). *Oeconomica*. the Works of Aristotle. Oxford. Clarendon Press.
- 24) _____(1966). *The Works of Aristotle*(orig. 1915). vols. IX. X. Sir D..Ross(trans.). Oxford University Press.
- 25) Bammel,G., Lei L. B. Bammel. 하현국(역)(1993). 여가와 인간행동. 서울 : 백산출판사.
- 26) Dockrey, K.(1996). *A Growing Family Where People Really Like Each Other*. Minneapolis: Bethany House Publishers.
- 27) Egner, E.(1976). *der Haushalt-Eine Darstellung seiner volkswirtschaftlichen Gestalt*. Duncker & Humblot. Berlin.
- 28) Elster, J.(1985). *Making Sense of Marx*.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9) Fromm, E.(1961). *Marx's Concept of Man*. 마르크스의 人間觀. 김창호(역) (1993). 서울 : 동녘.
- 30) Nelson, J.(1995). *We Are Family*. Primarily Health Series. Comprehensive Health Education Foundation(CHEF). The Wright Group.
- 31) Pahl, R. E.(ed.)(1988). *On Work*. Basil Blackwell.
- 32) Polanyi, M.(1958). *The Study of Ma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33) Proctor, R. E.(1988). *Education's Great Amnesia*. Indiana University Press.
- 34) Tolliver, C.(1994), *At-Home Motherhood: Making It Work for You*, California: Resource Publications, Inc.